ResearchGate

See discussions, stats, and author profiles for this publication a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73554836

<<□□□□>>□ <<□□□□□□>>□ □□ □□ □□□ □□ □□□ □□ □□ □□ □□

Article · August 2023

DOI: 10.17290/jlsk.2023..96.3

CITATIONS
0

READ
1

2 authors:



Jeong-up Do
Seoul National University
22 PUBLICATIONS **2** CITATIONS
SEE PROFILE



Jung sung h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91 PUBLICATIONS **1,345** CITATIONS
SEE PROFILE

All content following this page was uploaded by Jeong-up Do on 01 September 2023.

The user has requested enhancement of the downloaded file.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한자 반복 구성에 대한 만주어 번역 양상 비교 연구*

도정업 · 정성훈**

- 차 례 -

1. 머리말
2. 논의의 배경
3.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자료 추출과 유형화
   3.1. 자료 추출과 형식적 분류
   3.2. 만주어 번역의 유형화
4.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일치 구문
   4.1. 완전 일치
   4.2. 부분 일치
      4.2.1. 음소
      4.2.2. 음절
      4.2.3. 단어 또는 구
5.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불일치 구문
   5.1. 『御製詩經』에서만 반복
   5.2. 『御製翻譯詩經』에서만 반복
   5.3. 두 판본에서 다른 양상으로 반복
   5.4. 두 판본에서 모두 반복하지 않는 구문
6. 맺음말

언어학 제 96 호 (2023. 8. 30: 3-3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3306).
** 도정업(제1저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dju1st@naver.com)
정성훈(교신저자):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kobe99@mnu.ac.kr)

DOI 10.17290/jlsk.2023..96.3

1. 머리말

본 연구는『詩經』을 만주어로 번역한『御製詩經(Han i araha ši ging ni bithe)』(1654)과『御製翻譯詩經(Irgebun i nomun)』(1768)의 한자 반복 구성을 만주어로 번역한 양상을 유형화하여 비교한다.[1] 이를 통하여 순치제 시기에 간행된『御製詩經』과 건륭제 시기에 간행된『御製翻譯詩經』의 번역 방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나라 시기에는『詩經』이 수차례 만주어로 번역되었다. 또한『御製淸文鑑』에는 만주어로 번역된『詩經』이 예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청나라에서는『詩經』에 대한 이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희제 시기에는 Nionio에게 매일『詩經』을 새로 번역하여 강의하게 하였다고 한다(Chase 1979: 74). 만주어로 번역된『詩經』중에서 본 연구가 검토한『御製詩經』과『御製翻譯詩經』은 황제의 명에 의해서 간행된 문헌이다. 이 두 문헌은 서로 관련이 깊은데, 김주원・고동호・정제문(2009: 7)에서 밝힌 바와 같이,『御製翻譯詩經』御製序(7b-8b)에는 순치 11년(1654)에 간행된『御製詩經』을 새로 번역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御製翻譯詩經』이『御製詩經』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두 문헌의 번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번역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번역 양상의 차이는 편찬자의 번역 방침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詩經』의 한자 반복 구성에 나타난 두 문헌의 번역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두 문헌에서 나타나는 번역 방침의 차이를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논의의 배경을 간략히 언급한다. 3장에서는『御製詩經』과『御製翻譯詩經』의 자료를 어떻게 추출하고 분석하였는지를 기술한다. 4장과 5장에서는『御製詩經』과『御製翻譯詩經』의 한자 반복 구성에 대한 만주어 번역을 유형화하였는데, 4장에서는 두 문헌의 만주어 번역이 일치하는 경우를 완전 일치 구문과 부분 일치 구문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5장에서는 두 문헌의 만주어 번역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양상으로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6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위의 논의를 정리한다.

---

1)『御製詩經』과『御製翻譯詩經』은 각각 順治版 Han i araha ši ging ni bithe와 乾隆版 Irgebun i nomun을 김주원・고동호・정제문(2009: 2)에서 편의상 명명한 것이다. 이 중 Irgebun i nomun은 판심제가 '御製翻譯詩經'으로 되어 있어서 이 명칭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2. 논의의 배경

청나라는 북경에 입관한 이후에 한문으로 된 많은 문헌을 만주어로 번역하였다. 그 문헌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번역된 문헌이 『詩經』이다. 청나라는 먼저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번역하였는데, 오경(五經) 중에서는 『詩經』이 가장 먼저 번역되었다. 『詩經』은 시가(詩歌)이기 때문에 번역이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도 이른 시기에 번역된 것이다. 그러나 Chase (1979: 74)는 이 번역을 좋지 않은 번역으로 평가하였다.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Chase (1979)의 평가가 정당하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御製詩經』이 편찬된 이후에도 『詩經』은 몇 차례 더 만주어로 번역되었다. 그중 하나가 건륭제 통치 기간에 번역한 『御製翻譯詩經』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御製翻譯詩經』은 순치 11년(1654)에 간행된 『御製詩經』을 저본으로 하여 다시 번역한 것이다.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은 『詩經』을 만주어로 번역한 문헌이지만 두 문헌이 번역된 각 시기의 만주어가 처한 상황은 달랐다. 청나라가 북경에 입관한 후에는 만주어가 점차 쇠퇴하여 만주인들에게 한어가 제1 언어가 되었다. 만주인들에게 한어가 만주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정도로 특정하기 어려우나, Chase (1979: 160)는 강희제 시기 초반부터 만주어의 쇠퇴가 시작되어 강희제 시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어가 제1 언어가 된 것으로 보았다. 즉, 매우 이른 시기부터 만주어가 쇠퇴한 것으로 본 것이다. 宮崎市定(1991: 335)은 옹정제 시기까지 잘 유지되던 만주어가 건륭제 시기부터 급격히 감쇄되었다고 보았다. 趙志忠(2000: 27)은 후금 시기부터 강희 61년까지 약 100년간 모어 사용 시기, 옹정 원년부터 건륭 60년까지 72년간 이중 언어 사용 시기, 가경 원년부터 함풍 11년까지 65년간 혼합어 사용 시기를 거쳐 동치제 시기부터는 한어만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자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순치제 시기와 건륭제 시기의 만주어의 지위가 달랐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 순치제 시기는 북경에 입관한 지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만주어에서 '규범'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건륭제 시기에는 『御製增訂淸文鑑』(1771)을 편찬하여, 한자에 대한 상당수의 만주어 음차형을 모국어형으로 교체할 정도로 만주어의 규범형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최계영 2017: 49). 따라서 만주어의 규범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던 시기에 간행된 『御製翻譯詩經』에 나타난 만주어는 정제된 문어 만주어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2] 정리하면 『御製詩經』은 아직 만주어가 제1 언어인 시기에 간행된 문헌인 반면 『御製翻譯詩經』은 만주어가 구어로서는 제1 언어의 지

위를 잃었지만, 문어로서는 가장 규범화된 시기에 간행되었다. 결국 이 두 문헌에 나타난 한어의 만주어 번역을 비교하는 작업은 동일한 문헌에 대한 번역자의 번역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에 나타난 번역 차이에 대한 논의는 葉高樹(1992)와 김주원・고동호・정제문(2009)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문헌 전체를 다루지는 않았으나 葉高樹(1992)에서는 卷一의 <周南>과 <召南>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김주원・고동호・정제문(2009)은 제1권, 3권, 5권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표기, 어휘, 해석, 시늉말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앞선 두 연구와는 달리 문헌 전체에서 발견되는 한자 반복 구성에 집중한다. 다른 글쓰기 형식에 대하여 시가(詩歌) 형식이 더 빈번히 보이는 특성 중 하나가 어구의 반복이다. 결국 한자 반복 구성에 대한 번역을 검토하는 것은 번역자가 『詩經』이라는 문헌을 어떤 방침을 가지고 번역하였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한자 반복 구성을 만주어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詩經』에 나타난 한자 반복 구성 전체를 검토하여 두 문헌의 번역의 차이를 비교한다.[3)]

3.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자료 추출과 유형화

3.1. 자료 추출과 형식적 분류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에 나타나는 한자 반복 구성에 대한 만주어 번역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御製翻譯詩經』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

2) 이훈(2018: 276)에서는 건륭기를 만주어 구어는 쇠퇴하면서 동시에 만주어 문어가 발전하는 기묘한 시대라고 평가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이용한 『御製詩經』은 중국 요녕성도서관 소장본이고, 『御製翻譯詩經』은 文淵閣 四庫全書본이다. 이 판본에 대한 자세한 서지 사항과 특징은 김주원・고동호・정제문(2009: 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경	어제번역시경
1	詩經卷之一	irgebun i nomun ujui debtelin
2	國風一	gurun i tacinun uju
3	周南	jeo gung ni julergi
4	關關雎鳩	guwendure guwendure jirgio
5	在河之洲	birai jubki de bimbi
6	窈窕淑女	fujurungga ambalinggv mergen sargan jui
7	君子好逑	ambasa saisa i sain holbon ombi
8	興也	ere yendebun
9	參差荇菜	umburi cumburi hinggari sogi oci
10	左右流之	hashv ici eyembi
11	窈窕淑女	fujurungga ambalinggv mergen sargan jui be
12	寤寐求之	amgacibe getecibe merkimbi
13	求之不得	merkifi baharakv de
14	寤寐思服	amgacibe getecibe gvnimbi
15	悠哉悠哉	atanggi ni atanggi ni
16	輾轉反側	kurbuxeme fuhaxame joboxombi
17	興也	ere yendebun
18	參差荇菜	umburi cumburi hinggari sogi oci
19	左右采之	hashv ici gurumbi
20	窈窕淑女	fujurungga ambalinggv mergen sargan jui be

<그림 1>『御製翻譯詩經』의 데이터베이스

『御製翻譯詩經』 데이터베이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프로젝트에서 구축한 텍스트 파일을 이용하였는데, 해당 텍스트에서 『詩經』의 한 행 또는 한 구절에 해당되는 한자 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만주어를 추출하고 이를 전처리하였다. 그 후 『詩經』의 한자 표현과 『御製翻譯詩經』의 만주어 번역에 대응되는 『御製詩經』의 만주어 번역을 입력하여 컴퓨터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만주어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을 추출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만주어 번역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한자의 반복 구성은 총 1,208회 나타났는데, 이 중 단순한 한자의 겹침(예를 들어, 景行行止, 乘乘馬 등) 등을 선별하였고 최종적으로 1,166*3(한문원문, 『御製詩經』 만주어, 『御製翻譯詩經』 만주어)의 구조를 보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시경	어제시경	어제번역시경
1	關關雎鳩	guwan guwan sere jioi gio	guwendure guwendure jirgio
2	悠哉悠哉	kemuni oncohon	atanggi ni atanggi ni
3	維葉萋萋	abdaha ler seme	abdaha ler ler seme
4	其鳴喈喈	terei guwenderengge gvli gvli sembi	terei guwenderengge gvli gvli sembi
5	維葉莫莫	abdaha fik seme	abdaha fik fik seme
6	是刈是濩	hadufi urebumbi	erebe hadufi erebe urebumbi
7	維絺維綌	narhvn muwa jodofi	jodon hiyaban jodofi
8	言告言歸	hendure gisun dancan de genere be ala	hendure gisun dancan de geneki
9	害澣害否	ya be dasatambi ya be nakambi	ya be dasatambini ya be nakambini
10	采采卷耳	senggete be gurufi guruci	senggete be gurumbi gurumbi
11	訏訏兮	far sembi	far far sembi
12	振振兮	giyan i yendembi	bar bar seme yendembi
13	薨薨兮	der sembi	dur dur sembi
14	繩繩兮	giyan i madambi	ter ter seme fusembi
15	揖揖兮	sor sembi	sor sor sembi
16	蟄蟄兮	giyan i fusembi	lar lar seme badarambi
17	桃之夭夭	toro moo niowari niori	toro moo niowari niowari
18	灼灼其華	terei ilga xari siri	terei ilha xari xari
19	桃之夭夭	toro moo niowari niori	toro moo niowari niowari
20	桃之夭夭	toro moo niowari niori	toro moo niowari niowari

<그림 2> 한자 반복 구성에 대응하는 만주어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한자의 반복 구성을 다시 형식적으로 분류해 보았다. <표 1>처럼 한자의 반복 구성을 한자의 수로 구분한 후, 그 반복 구성형식을 분류하고 빈도를 측정하였다.[4)]

4) 본 연구에서는 한시의 반복 형식이 만주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한시에서 필수적인 운(韻)이 만주어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는 집중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한시의 운(韻)과 관련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돌린다.

구의 종류	구성 형식	빈도	비율(%)
3언	AAB	9	0.77
	ABB	3	0.26
4언	ABCC	374	32.07
	ABAC	340	29.16
	AABC	233	19.98
	ABCB	86	7.38
	ABAB	59	5.06
	AABB	26	2.23
	ABBC	2	0.17
	ABCA	2	0.17
5언	AABCD	7	0.60
	ABCBD	5	0.43
	ABCCD	5	0.43
	ABCDD	5	0.43
	ABBCD	3	0.26
	ABCDC	2	0.17
6언	AABCDE	2	0.17
	ABCCDE	1	0.09
7언	ABCDEFF	2	0.17
합계		1,166	100

<표 1>『詩經』의 반복 구성형식

3언의 반복 형식은 AAB와 ABB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각각 9회와 3회로 총 12회 출현하였다. ‘詵詵兮’나 ‘鼓咽咽’ 따위가 그 예이다. 4언의 반복 형식은 모두 8가지 형식이 나타났는데, ABCC, ABAC, AABC, ABCB, ABAB, AABB, ABBC, ABCA 순이었다. 이 중에서 ABCC(32.07%), ABAC(29.16%), AABC(19.98%), ABCB(7.38%), ABAB(5.06%), AABB(2.23%) 구성이 전체의 95.88%에 달한다. ABCC 구성은 ‘維葉萋萋’, ‘其鳴喈喈’ 등으로 총 374회 출현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형식이었다. ABAC 구성은 ‘是刈是濩’이나 ’維絺維綌’ 등으로 총 340회 나타났다. AABC 구성은 ‘關關雎鳩’, ‘采采卷耳’ 등으로 총 233회 나타났다. ABCB 구성은 ‘何斯違斯’, ‘綠兮衣兮’ 등으로 총 86회, ABAB 구성은 ‘悠哉悠哉’, ‘委蛇委蛇’ 등으로 총 59회, AABB 구성은 ‘委委佗佗’, ‘嘽嘽焞焞’ 등으로 총 26회였다. ABBC와 ABCA 구성은 각각 2회씩 나타났다. 5언의 반복 형식은 6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나, 그 빈도는 현저히 낮았다. AABCD, ABCBD, ABCCD, ABCDD, ABBCD, ABCDC 구성 순이었고, 각각 7회, 5회, 5회, 5회, 3회, 2회가 출현하였다. 그 예로는 각각 ‘坎坎伐檀兮’, ‘俾爾彌爾性’, ‘舒而脫脫兮’, ‘將其來施施’, ‘或燕燕居息’, ‘受小球大球’ 등이었다. 6언의 반복 형식은 AABCDE와

ABCCDE 구성으로, 각각 2회와 1회 나타났고 ‘藹藹王多吉士’, ‘藹藹王多吉人’과 ‘無曰高高在上’이 그 예들이다. 마지막으로 7언의 반복 형식은 ABCDEFF 구성으로 2회 나타났는데, ‘於我乎夏屋渠渠’와 ‘二之日鑿冰沖沖’이 그것이다.

3.2. 만주어 번역의 유형화

3장 1절에서 다룬 형식적 분류와 함께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에 나타난 만주어 번역을 비교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 유형화 결과와 빈도는 <표 2>와 같다.

유형	내용	빈도
완전 일치	완전 일치	87
부분 일치	음소 차이	17
	음절 차이	65
	단어/구 차이	823
불일치	『御製詩經』만 반복	14
	『御製翻譯詩經』만 반복	90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복	59
	모두 반복하지 않음	11
합계		1,166

<표 2>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만주어 번역 비교

『詩經』의 반복 구성에 대한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만주어 번역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완전일치, 대체로 일치하나 미세하게 차이가 나면 부분일치,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을 때에는 불일치로 크게 유형화하였다. 다시 내용별로 부분일치를 음소, 음절, 단어/구 차이로 구분하였고, 불일치는 『御製詩經』 만주어에서만 반복이 나타나는 유형, 『御製翻譯詩經』 만주어에서만 반복이 나타나는 유형,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 만주어에서 모두 반복이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유형, 끝으로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 만주어에서 반복도 나타나지 않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제 이를 종합하여 『詩經』에서 빈도가 높은 반복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만주어 번역이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해 본다. 『詩經』에서 빈도가 높은 반복 구성 중 ABCC, ABAC, AABC 구성을 중심으로 만주어 번역 유형을 살펴본다. 이 3가지 구성은 전체 용례의 81%에 해당하는 947개의 빈도를 나타낸다.

<표 3>은 ABCC 구성과 두 문헌의 만주어 번역 유형을 비교한 것이다.

구성	유형	내용	빈도	비율(%)
ABCC	완전 일치	완전 일치	10	2.67
	부분 일치	음소 차이	5	1.34
		음절 차이	7	1.87
		단어/구 차이	313	83.69
	불일치	『御製詩經』만 반복	0	0
		『御製翻譯詩經』만 반복	29	7.75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복	10	2.67
		모두 반복하지 않음	0	0
합계			374	100

<표 3> ABCC 구성의 만주어 번역 유형 비교

ABCC 구성에서는 6가지의 유형이 발견되었다.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만주어 번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10회(2.67%)였으며, 두 문헌의 번역에서 단어 또는 구에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 경우가 313회(83.69%)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한편 『御製詩經』에서는 반복되지 않았으나, 이후 『御製翻譯詩經』에서 반복하는 형식으로 번역한 경우가 29회(7.75%)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반복하지 않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詩經』의 ABCC 구성은 적어도 하나의 문헌에서는 만주어로 반복하는 형식의 번역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표 4>는 ABAC 구성과 두 문헌의 만주어 번역 유형을 비교한 내용이다.

구성	유형	내용	빈도	비율(%)
ABAC	완전 일치	완전 일치	42	12.35
	부분 일치	음소 차이	3	0.88
		음절 차이	13	3.82
		단어/구 차이	228	67.05
	불일치	『御製詩經』만 반복	12	3.53
		『御製翻譯詩經』만 반복	18	5.29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복	14	4.12
		모두 반복하지 않음	10	2.94
합계			340	100

<표 4> ABAC 구성의 만주어 번역 유형 비교

ABAC 구성에서는 8가지의 유형이 모두 나타났다.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에서 완벽하게 번역이 일치하는 경우는 42회로 ABCC 구성에 비해 그 빈도와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역시 두 문헌에서 단어 또는 구에서 미세한 번역의 차이가 존재한 경우는 228회(67.05%)로 가장 높았으나, ABCC 구성에 비하여 그 빈도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詩經』의 ABAC 구성에 대한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만주어 번역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번역 유형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앞서 검토한 ABCC 구성과 AABC 구성에서는 『御製詩經』만 반복하거나 모두 반복하지 않는 유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ABAC 구성에서는 『御製詩經』만 반복하거나 모두 반복하지 않는 유형이 발견된다. 『御製詩經』만 반복하는 유형은 전체 14개 용례가 발견되는데, 12개 용례가 ABAC 구성에 해당한다. 모두 반복하지 않는 유형은 전체 11개 용례가 발견되는데, 10개 용례가 ABAC 구성에 해당한다. ABAC 구성이 ABCC 구성이나 AABC 구성과 다른 점은 반복되는 성분이 간격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뒤에서 더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번역자들에게 반복되는 성분이 간격을 두고 있는 경우는 반복되는 성분이 연속되는 경우에 비해 반복 구성으로 번역되는 경향이 더 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5>는 AABC 구성에 대한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만주어 번역 유형을 비교한 표이다. AABC 구성은 6가지의 유형이 나타났는데 역시 두 문헌에서는 단어 또는 구에서 약간의 번역 차이가 존재한 경우가 159회(68.2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AABC 구성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두 구성과는 다르게,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만주어 번역의 빈도와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御製翻譯詩經』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만주어 번역의 빈도와 비율은 각각 24회와 10.3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이하다. 또한 ABCC 구성과 마찬가지로, 『御製詩經』 만주어에서만 반복이 나타나는 경우와 두 문헌에서 모두 반복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구성	유형	내용	빈도	비율(%)
AABC	완전 일치	완전 일치	9	3.86
	부분 일치	음소 차이	5	2.15
		음절 차이	25	10.73
		단어/구 차이	159	68.24
	불일치	『御製詩經』만 반복	0	0
		『御製翻譯詩經』만 반복	24	10.30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복	11	4.72
		모두 반복하지 않음	0	0
합계			233	100

<표 5> AABC 구성의 만주어 번역 유형 비교

우리는 다음 4장과 5장에서 반복 구성 형식에 대한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만주어 번역 양상에 대해서 실제 예문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4.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일치 구문

4.1. 완전 일치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에서 완전 일치 구문은 87개가 나타난다. 완전 일치 구문은 19가지 구성 형식 중 AABB, AABC, ABAB, ABAC, ABCB, ABCC 등 6개 구성에서만 나타난다. 특히 약 절반에 해당한 42개 용례가 ABAC 구성에 해당한다. ABAC 구성의 용례들을 제시하여 본다.[5)]

(1) ABAC 구성의 완전 일치 구문
   a. 爰居爰處(여기에서 거하고 여기에서 처하며)
      ede tembi, ede bimbi, (御詩 11:12a)
      ede tembi ede bimbi, (翻詩 5:23b)
   b. 如雷如霆(천둥처럼 번개처럼)
      akjan i adali, talkiyan i adali ofi, (御詩 18:71a)
      akjan i adali talkiyan i adali ofi, (翻詩 7:42a)
   c. 無冬無夏(겨울도 없이 여름도 없이)
      tuweri akū, juwari akū, (御詩 7:1b)
      tuweri akū juwari akū. (翻詩 3:78a)
   d 以薪以蒸(굵은 나무 가는 나무로)
      moo gajimbi orho gajimbi. (御詩 11:22a)
      moo gajimbi orho gajimbi, (翻詩 5:27a)

예문에서 나타나듯이 한자 반복 구성은 만주어 번역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1a)의 지시대명사, (1b)의 후치사, (1c)의 형용사, (1d)의 동사처럼 모든 성분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자 반복 구성이 만주어 번역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5) 예문에서 『御製詩經』은 御詩, 『御製翻譯詩經』은 翻詩로 제시한다. 각 시구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기본적으로 한시를 번역하였으나, 한시와 만주어의 번역의 차이가 큰 경우에 만주어의 번역을 반영하였다.

(2) ABAC 구성의 번역에서 반복되지 않는 구문

a. 旣醉旣飽(이미 취하고 이미 배부르다)
soktoro ebire jakade, (御詩 19:14a)
soktoro ebire jakade, (翻詩 8:10b)

b. 之子之遠(그 분은 멀리로)
agu aldangga ofi, (御詩 15:14b)
agu aldangga ofi, (翻詩 5:131b)

이것은 ABAC 구성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대체로 載, 之, 旣, 于 등의 부사나 허사(虛辭)가 반복되는 경우에 만주어 번역에서는 반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에서도 (2a)는 旣가 반복되고, (2b)는 之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BAC 구성 외에도 AABB(2개), AABC(9개), ABAB(10개), ABCB(14개), ABCC(10개) 구성에서도 완전 일치 구문이 발견되는데, 참고를 위하여 각 구성에 해당하는 예문을 1개씩 제시한다.

(3) 다른 구성에서 보이는 완전 일치 구문

a. AABB: 兢兢業業(두렵고 불안하여)
geleme geleme, olhome olhome, (御詩 18:82b)
geleme geleme olhome olhome, (翻詩 7:48b)

b. AABC: 燕燕于飛(제비들 날아)
cibin cibin deyeci, (御詩 2:6b)
cibin cibin deyeci, (翻詩 2:4a)

c. ABAB: 如何如何(어찌하여 어찌하여)
ainu ni ainu ni. (御詩 6:32a)
ainu ni ainu ni. (翻詩 3:73b)

d. ABCB: 今夕何夕(오늘 저녁은 어떤 저녁일지요)
ere yamji ai yamji, (御詩 6:9b)
ere yamji ai yamji, (翻詩 3:53a)

e. ABCC: 其實離離(열매 열어 달려 있다)
terei tubihe jergi jergi. (御詩 9:57a)
terei tubihe jergi jergi, (翻詩 4:25b)

4.2. 부분 일치

4.2.1. 음소

음소의 차이를 보이는 번역은 17개로 많지 않다. 구성 방식별로 빈도를 보면, ABAB 3개, ABAC 1개, AABC 5개, ABAB 1개, ABAC 2개, ABCC 5개 등이다. 자음과 모음을 기준으로 보면 자음의 차이가 나는 번역은 5개이고, 모음의 차이가 나는 번역은 12개이다.

(4) 자음의 차이를 보이는 번역
   a. ABAB: 委蛇委蛇(의젓하고 의젓하다)
      ur***g***uri hai***g***ari, ur***g***uri hai***g***ari. (御詩 1:35a)
      ur***h***uri hai***h***ari ur***h***uri hai***h***ari. (翻詩 1:18b)
   b. ABAC: 有洸有潰(용감하고 노하며)
      jol***g***ocome dushuteme (御詩 2:29b)
      jol***h***ocome dushuteme, (翻詩 2:16a)
   c. AABC: 趯趯阜螽(새끼 메뚜기가 뛴다)
      se***k***sehe dabali dabali fekumbi, (御詩 1:28a)
      se***h***sehe dabali dabali fekumbi, (翻詩 1:14b)

(4)는 자음의 차이가 나는 번역이다. 우선, (4a)와 (4b)는 만주어에서 자주 발견되는 h~g 유동 현상을 보여준다.[6] 자음의 차이를 보이는 5개 용례 중 4개가 h~g 유동 현상과 관련이 있다. 『御製詩經』에서 g로 표기된 것이 『御製翻譯詩經』에서는 모두 h로 바뀌어 있다. 두 문헌 전체적으로 보아도 『御製詩經』에서 g로 쓰인 것을 『御製翻譯詩經』에서 h로 바꾼 경우가 많다. 한자 반복 구성의 번역 전체를 보면 h~g 유동은 11개가 발견된다. 그 중 『御製詩經』에서 g로 표기되는 것이 『御製翻譯詩經』에서는 h로 표기되는 경우는 9개가 발견되고, 반대인 경우는 2개가 발견된다. (4c)는 h~g 유동이 아닌 유일한 용례이다. 이 용례에서는 '메뚜기'를 의미하는 단어의 이형태인 seksehe와 sebsehe가 각각의 문헌에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h~g 유동에 대해서는 성백인(1990: 49-53)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5) 모음의 차이를 보이는 번역

a. AABC: 呦呦鹿鳴(기쁜 소리로 사슴이 울며)
buhū mung mạng seme murame. (御詩 9:2a)
buhū mung mụng seme murame, (翻詩 4:1a)

b. ABCC: 和鸞雝雝(방울소리 서로 부딪혀 조화롭다)
cinggilakū honggon kạlạng kiling, (御詩 9:55a)
cinggilakū honggon kịlịng kiling, (翻詩 4:24b)

c. ABAC: 或耘或耔(김을 매거나 북돋는다)
ememungge yangsambi. ememungge hukšụmbi. (御詩 13:26a)
ememungge yangsambi ememungge hukšẹmbi, (翻詩 5:92b)

d. ABAB: 有瞽有瞽(맹인들이여 맹인들이여)
dogo sa, dogo sẹ. (御詩 19:20b)
dogo sa dogo sạ, (翻詩 8:15b)

(5)는 모음의 차이가 나는 번역이다. (5a)와 (5b)는 음성상징 성분을 반복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7] 이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음성상징 성분을 반복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김주원・고동호・정제문(2009: 24-25)에서 지적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御製詩經』은 음성상징 성분의 모음을 바꾸어 변화를 주었는데, 『御製翻譯詩經』은 동일한 음성상징 성분을 반복하였다고 하였다.[8]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御製翻譯詩經』은 음성상징 성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휘에서도 반복 구성을 번역할 때 동일한 만주어 어형을 반복하는 방식을 주로 택한다. (5c)는 '흙을 북돋다'를 의미하는 단어의 이형태인 hukšu-와 hukše-가 각각의 문헌에 실린 것이다. (5d)는 상당히 독특한 반복 양상을 보여준다. 이 용례에는 dogo(맹인)에 복수를 나타내는 표지인 sA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모음 조화를 따르면 당연히 sa가 붙어야 한다. 그런데 『御製詩經』에는 한 번은 sa를 붙였지만, 다른 한 번은 se를 붙였다. 이것은 오각일 수도 있으나 『御製詩經』의 편찬자가 리듬감과 묘미를 위하여 모음을 바꾸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용례는 1개만 나타나므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

7) 만주어에서 대표적인 반복 구성은 음성상징 성분의 반복이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서는 고동호(2002)를 참조할 수 있다.

8) 김주원・고동호・정제문(2009)에서는 '시늉말'이라고 하였으나, 고동호(2002)의 '음성상징 성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성을 위하여 '음성상징 성분'으로 바꾸어 인용한다.

4.2.2. 음절

음절의 차이를 보이는 번역은 65개가 발견된다.[9] 구성 방식별로 빈도를 보면, AABB 2개, AABC 25개, ABAC 13개, ABCB 18개, ABCC 7개로 나타난다. 독특한 점은 AABC(233개), ABAC(340개), ABCC(374개)보다 용례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ABCB(86개)에서 18개나 발견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ABCB 구성 방식에서는 모든 음절의 차이가 어미에서 드러난다.

(6) ABCB 구성 방식에서 음절 차이
   a. 拊我畜我(나를 쓰다듬고 나를 먹여주었다)
      mimbe bilušaha. mimbe erše***he***. (御詩 12:43b)
      mimbe bilušaha mimbe erše***hebi***, (翻詩 5:68a)
   b. 畢之羅之(그물을 치고 그물을 친다)
      ha gida***mbi*** asu tatambi, (御詩 14:3a)
      ha gida***me*** asu tatambi, (翻詩 5:102b)
   c. 飮之食之(마시고 먹게 한다)
      omibu***cina***, ulebu***cina***, (御詩 15:15a)
      omibu***kini*** ulebu***kini***, (翻詩 5:132a)
   d. 采之亨之(따다가 삶는다)
      fatafi buju***mbi***, (御詩 15:16b)
      fatafi buju***ki***, (翻詩 5:133b)

(6a)를 보면 『御製詩經』의 -he가 『御製翻譯詩經』에서는 -hebi로 바뀌어 있다. 즉, 해당 구문에 대해 『御製詩經』은 과거 시제로 간주하였고, 『御製翻譯詩經』은 현재 완료 시제로 간주하였다. bilušaha는 두 문헌 모두 -ha를 썼지만 『御製翻譯詩經』에서는 뒤에 오는 -hebi의 의미를 받기 때문에 두 문헌의 번역에 차이가 생긴다.[10] (6b)에서는 『御製詩經』에서 정동사 어미 -mbi를 반복하여 대등 접속문을 구성한 것을 『御製翻譯詩經』에서 부동사 어미 -me를 써서 접속문을 구성하여 변화를 주었다. (6c)에서는 원망법 어미의 형태의 차이가 있다. 『御製詩經』에

9) 본 연구에서는 음절의 차이를 보이는 번역에 형태소의 차이를 보이는 번역을 포함한다. 음절의 차이를 보이는 번역에서 형태소의 차이를 보이는 번역을 함께 다루는 이유는 두 차이 사이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음절의 차이를 보이는 번역에서 형태소의 차이를 번역을 함께 다루기로 한다.

10) 대등 접속문 구성에서 분사 어미가 부동사 어미처럼 쓰여서 뒤에 오는 성분의 의미를 받는 현상은 도정업(2018)을 참고할 수 있다.

서는 -cina가 쓰였으나, 『御製翻譯詩經』에서는 -kini가 쓰였다. ABCB 구성에서 보이는 음절의 차이 중 가장 많은 용례인 9개 용례가 -cina와 -kini의 차이이다. 만주어에서 원망법 어미는 -ki, -kini, -cina가 있는데 -cina가 가장 적게 쓰인다. 『御製翻譯詩經』만 보더라도 -kini는 141개가 쓰인 반면에 -cina는 11개가 쓰였다. 가장 이른 시기의 만주어 문법 현상을 반영하는 『滿文老檔』(1778)의 태조편을 보더라도 -kini는 691개가 발견되나 -cina는 65개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이 번역의 차이는 번역자의 번역 방침의 차이로 볼 수도 있으나 잘 사용되지 않는 형태소인 -cina를 -kini가 대체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6d)는 비과거 시제 정동사 어미인 -mbi와 원망법 어미인 -ki의 차이를 보여준다. -mbi는 비과거 시제에 쓰이지만 의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 『御製翻譯詩經』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여 의도만을 표현하는 -ki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ABCB가 아닌 구성 방식에서 나타나는 음절의 차이를 보이는 용례를 보면, 어미의 차이도 발견되지만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7) ABCB가 아닌 구성 방식에서 나타나는 음절의 차이
   a. AABC: 肅肅宵征(고요하게 밤에 나타난다)
      cib cab seme dobori yabu***mbi***. (御詩 1:40a)
      cib cib seme dobori yabu***rengge***, (翻詩 1:21b)
   b. AABC: 悠悠蒼天(아득한 푸른 하늘)
      buru bara niohon abka, (御詩 4:2b)
      buruhun buruhun niohon abka, (翻詩 2:58b-59a)
   c. ABCC: 桃之夭夭(복숭아나무가 싱싱하다)
      toro moo niowari ***niori***. (御詩 1:13a)
      toro moo niowari ***niowari*** (翻詩 1:6b)
   d. ABAC: 宜兄宜弟(형과 화목하고 동생과 화목하다)
      ahūn de acabu deo de acabu, (御詩 9:54a)
      ahūn de acabu***ngga*** deo de acabu***ngga***, (翻詩 4:24a)
   e. ABAC: 自西自東(서쪽에서 동쪽에서)
      wargi dergi (御詩 16:63a)
      wargi***ci*** dergi***ci***, (翻詩 6:37b)

(7a)를 보면, 앞에서 검토했던 어미의 차이를 볼 수가 있다. 『御製詩經』은 정동사 어미 -mbi를 쓴 반면에, 『御製翻譯詩經』에서는 분사 어미 -re에 명사화소 -ngge를 붙여서 썼다. 이 용례에서는 어미의 차이 외에도 음성상징 성분의 차이를 보여준다. (7b)에서 (7e)까지는 ABCB 구성에서 볼 수 있었던 음절 차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7b)와 (7c)는 음성상징 성분의 반복이 음절 단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7d)는『御製詩經』에서 '화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야 하지만 acabu(화목하게 하라, 만나게 하라)처럼 명령형으로 쓰였다. 이것을『御製翻譯詩經』에서 acabungga(화목하다)로 바꾼 것이다. (7e)에서는 自西自東을『御製詩經』에서 wargi dergi(서쪽 동쪽)로 번역하였으나『御製翻譯詩經』에서 탈격 표지 ci를 붙여서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였다.

음절만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음소만 차이를 보이는 경우처럼 음성상징 성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들은 어미나 격 표지와 같은 문법 형태소에서 차이를 보인다. 만주어의 문법 형태소는 대부분 1음절로 구성되기 때문에 문법적인 부분을 수정한 것이 음절 차이로 분류되는 것이다. 김주원・고동호・정제문(2009: 19)에서『御製翻譯詩經』은『御製詩經』보다 번역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이 음절의 차이를 보이는 번역에서도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4.2.3. 단어 또는 구

『御製詩經』과『御製翻譯詩經』의 번역을 유형화시켰을 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 단어 또는 구가 차이를 보이는 유형이다. 전체 1,166개 용례 중에서 823개 용례가 이 유형에 속한다. <표 6>에서 구성 방식별로 살펴보면, ABCC 313개, ABAC 228개, AABC 159개, AAB 4개, AABB 18개, AABCD 4개, AABCDE 2개, ABAB 33개, ABB 3개, ABBC 2개, ABBCD 3개, ABCA 2개, ABCB 38개, ABCBD 4개, ABCCD 5개, ABCCDE 1개, ABCDC 2개, ABCDD 1개, ABCDEFF 1개가 이 유형에 속한다. ABCC, ABAC, AABC 방식이 전체 용례에서 947개(81.21%)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도 3개의 구성 방식의 용례가 700개(85.05%)가 발견된다. 단어 또는 구가 차이를 보이는 유형을 반복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유형화하면 7개의 유형이 발견된다.

유형	내용	빈도
일치	반복과 관련 없는 단어 추가	148
	음소 차이	30
	음절 차이	13
	반복되는 단어 차이	8
불일치	『御製詩經』만 반복	1
	『御製翻譯詩經』만 반복	333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복	210
	모두 반복하지 않음	80
합계		823

<표 6> 단어 또는 구가 차이를 보이는 유형의 반복 구성

<표 6>에서 우선 『御製詩經』만 반복하는 유형과 모두 반복하지 않는 유형을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구성 3개 중에서 ABAC 구성에서만 『御製詩經』만 반복하거나 모두 반복하지 않는 유형이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유일한 용례이지만 『御製詩經』만 반복하는 경우는 ABAC에서 나타난다. 모두 반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80개의 용례가 발견되는데, AAB 1개, AABC 1개, ABCC 2개를 제외한 76개의 용례가 모두 반복되는 성분이 간격을 두고 있다. 더 자세히 빈도를 제시하면 ABAC 48개, ABCB 22개, ABAB 1개, ABCA 2개, ABCBD 3개이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구성 3개 중에서 유일하게 모두 반복하지 않는 유형을 보인 ABAC 구성에서 48개 용례가 발견되는 것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御製詩經』만 반복하는 유형이 1개 용례만 발견되는 데 비하여 『御製翻譯詩經』에서만 반복하는 유형은 333개 용례가 발견되는 것이 눈에 띈다. 분포상으로 보았을 때 『御製翻譯詩經』의 번역자들이 『御製詩經』의 번역자들에 비해서 『詩經』의 한자 반복 구성을 더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유형 중에서 단어 또는 구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만 발견되는 유형은 반복과 관련이 없는 단어 추가와 반복되는 단어 차이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 두 유형에 대한 용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우선 반복과는 관련이 없는 단어가 추가된 유형을 검토하겠다. 단어만 추가된 유형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御製翻譯詩經』에서 ni나 kai를 추가한 문장이다.

(8) ni나 kai를 추가한 『御製翻譯詩經』의 번역

a. ABAC: 害澣害否(어느 것을 빨고 어떤 것을 빨지 않겠는가)

ya be dasatambi. ya be nakambi. (御詩 1:7a)

ya be dasatambi***ni*** ya be nakambi***ni***. (翻詩 1:3b)

b. ABAC: 弗曳弗婁(입지 않고, 매지 않는다)
eturakū hūwaitarakū. (御詩 6:4a)
ainu eturakū hvwaitarakū ***ni***, (翻詩 3:49a)
c. ABAC: 以陰以雨(흐리고 비 내린다)
tulgun acabumbi aga acabumbi. (御詩 2:23b)
tulhun acabumbi aga acabumbi ***kai***, (翻詩 2:13b)
d. ABAC: 其菑其翳(시들고 말라 죽는다)
mukdehen, tuhan. (御詩 16:40a)
mukdehen tuhan ***kai***, (翻詩 6:24a)

(8a, b)는『御製翻譯詩經』의 번역에 문장말에 부가되는 첨사인 ni가 붙었다. (8c, d)는『御製翻譯詩經』의 번역에 문장말에 부가되는 첨사인 kai가 붙었다.『御製翻譯詩經』에서는 다른 문헌보다 첨사 ni와 kai의 사용이 빈번하다. ni나 kai가 감탄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詩歌) 형식인『詩經』에서 더 자주 쓰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御製翻譯詩經』은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 원문에 없는 동사를 번역에 추가하기도 한다.

(9) 번역 방식의 차이를 보이는 용례
a. ABAB: 其雨其雨(비오는가 비오는가)
agarao agarao (御詩 3:44a)
agarao agarao ***sehei***, (翻詩 2:55b)
b. ABAC: 不騫不崩(허물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
efujerakū ulejerakū (御詩 9:26b)
efujerakū ulejerakū ***okini***, (翻詩 4:11a)
c. ABCCD: 舒而脫脫兮(천천히 가만히)
takasu elheken elheken, (御詩 1:45a)
takasu elheken elheken ***oso***, (翻詩 1:23b)
d. ABCC: 鵲之彊彊(까치는 서로서로)
saksaha sasa sasa. (御詩 3:8b)
saksaha sasa sasa ***bimbi***, (翻詩 2:34a)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御製翻譯詩經』에는『御製詩經』에는 없는 동사 se-, o-, bi-가 번역에 추가되어 있다. 또한 동사들에 붙는 어미들도 번역에 알맞게 붙인 것을 볼 수 있다. (10a)에서는 지속 부동사 어미 -hei가 붙었고, (10b)

에서는 원망법 어미 -kini가 붙었다. (10c)에서는 동사 o-의 불규칙 명령형인 oso가 쓰였고, (10d)에서는 비과거 정동사 어미 -mbi가 붙었다.

『御製翻譯詩經』은 의미를 명확히 하는 단어를 추가하기도 하고, 한자어의 경우 만주어로 된 어휘로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10) 명확한 번역을 위한 단어 추가
  a. ABAC: 我徒我御(우리가 걷고, 우리가 수레 타며)
    muse yafahalame, muse ***teme***, (御詩 15:7a)
    muse yafahalame muse ***sejen tembi***, (翻詩 5:127a)
  b. ABAC: 侯栗侯梅(오직 밤, 오직 매화이다)
    damu ***usiha*** damu ***mei***, (御詩 12:54b)
    damu ***jancuhūn usiha*** damu ***nenden ilha*** kai, (翻詩 5:74a)

(10a)에서는 te-만 쓰더라도 무엇인가를 타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e-는 기본적으로 '앉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御製翻譯詩經』에서는 원문의 御에 더 가깝게 번역하기 위하여 sejen을 더하여서 '수레를 타다'라고 하였다. (10b)에서는 栗을 usiha(도토리)로 번역한 것을 더 명확히 하여 jancuhūn usiha(밤)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usiha는 '도토리'보다는 '별'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御製翻譯詩經』번역자는 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을 택했을 것이다. 또한 이 용례에서는 梅를 음차한 mei 대신 nenden ilha(매화)로 바꾸어 놓은 것도 발견할 수 있다.

많지는 않지만 두 문헌 사이의 문법 의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예문들이 있다.

(11) 문법 의식의 차이를 보이는 번역
  a. ABAC: 如茨如梁(지붕처럼 다리처럼)
    oyo i adali. ***muhi adali***. (御詩 13:31a)
    oyo i adali ***muhi i adali*** oho kai, (翻詩 5:94b)
  b. ABAC: 不戢不難(단속하지 않고, 삼가지 않는가)
    dasarak***ūn***, olhorak***ūn***. (御詩 14:2a)
    dasarakū ***nio*** olhorakū ***nio***, (翻詩 5:102a)

(11a)를 보면『御製詩經』에서 muhi adali(판자 나무 같은)로 쓴 것을『御製翻譯詩經』에서 muhi i adali로 바꾸어 놓았다. i adali(~과 같은)은 앞에 오는 단어가 i로 끝나는 경우 속격 표지 i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御製翻譯詩經』에서는

i로 끝나는 단어의 뒤에 i adali 형태로 써놓았다. 이러한 표기는 17세기 만주어 문법을 보이는『滿文老檔』이나『滿文三國志』(1650)에서는 발견되지 않고,『金瓶梅』(1708)에서야 yali i adali(『金瓶梅』 1:28b), jui i adali(『金瓶梅』 64:4a)와 같은 표기가 비로소 발견되기 시작한다.『御製翻譯詩經』은 1768에 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문법 의식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11b)에서는 비생산적으로 쓰이던 의문 첨사 -ūn이 개신형 의문 첨사 nio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Do (2019)에서는 이러한 표기가 17세기 만주어를 반영하는 문헌에서는 1회만 출현하고『金瓶梅』에서부터 생산적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결국『御製翻譯詩經』의 nio도 당시의 문법 의식을 반영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반복되는 단어의 차이를 검토한다. 반복되는 단어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8개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이 유형에서는 한자를 음차한 단어를 고유어로 바꾸거나 더 정확한 단어로 바꾼 용례가 발견된다.

(12) 반복되는 단어의 차이

a. AABC: 關關雎鳩(끼룩끼룩 저 물수리는)
guwan guwan sere jioi gio. (御詩 1:2a)
guwendure guwendure jirgio, (翻詩 1:1a)

b. AABC: 裳裳者華(빛나는 꽃은)
cang cang ni ilga (御詩 13:39b)
giltari giltari sere ilha, (翻詩 5:99b)

c. ABAB: 碩鼠碩鼠(큰 쥐야 큰 쥐야)
amba ***singgeri*** amba ***singgeri***. (御詩 5:29b)
amba ***lenggeri*** amba ***lenggeri***, (翻詩 3:45b)

(12a, b)에서는 반복되는 음성상징 성분을 한자를 음차한 단어에서 고유어로 바꾸어 놓을 것을 볼 수 있다. (12c)를 보면, singgeri는 '쥐'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에 오는 단어인 amba가 '크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용에 맞게 lenggeri(큰 쥐)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나머지 유형은 본문에서 검토하는 내용과 중복되므로 용례를 1개씩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13) 나머지 유형의 용례들

a. ABCC: 佩玉將將(패옥이 찰랑거린다)
ashaha gu ka***l***a***l***ng kiling, (御詩 6:29a)
ashaha gu ki***l***i***l***ng kiling sembi, (翻詩 3:70b)

b. ABCC: 棘心夭夭(대추나무 싹이 싱싱하다)
bula i niyaman niowari ***niori***. (御詩 2:16a)
bula i arsun niowari ***niowari***, (翻詩 2:9b)
c. AABC: 采采芣苢(질경이를 캐고 캔다)
jodoba be ***guruci***, (御詩 1:17a)
jodoba be ***gurumbi gurumbi***, (翻詩 1:8b)
d. ABAC: 載笑載言(웃으며 이야기했다)
inje***me*** gisure***me*** oho. (御詩 3:33b)
inje***me*** gisurehebi, (翻詩 2:49a)
e. AABC: 湜湜其沚(그 물가가 맑고 맑다)
terei fasilan ***bolgo genggiyen***. (御詩 2:26a)
terei gargan ***bolgo ombi***, (翻詩 2:14b)
f. AABC: 赳赳武夫(용맹하고 용맹한 무사여)
mangga hūsungge coohai haha, (御詩 1:15a)
hoo hoo sere coohai haha, (翻詩 1:7b)

(13a)는 음성상징 성분의 반복에서 음소의 차이를 보여준다. (13b)는 음성상징 성분의 반복에서 음절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3c)의 경우, 『御製翻譯詩經』에서만 동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13d)에서는 『御製詩經』에서만 부동사 어미 -me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御製翻譯詩經』에서만 반복되는 용례는 333개가 발견되는 반면에 『御製詩經』에서만 반복되는 용례는 1개만 발견이 된다. 이것은 문헌 전체로 보아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13e)에서는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에서 모두 어구를 반복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3f)에서는 두 문헌에서 반복하는 양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御製詩經』에서는 -nggA를 반복한 반면에 『御製翻譯詩經』에서는 음성상징 성분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일치 구문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불일치 구문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양상을 논의하기로 한다.

5.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의 불일치 구문

5.1. 『御製詩經』에서만 반복

『御製詩經』에서만 반복되는 유형은 전체 유형에서 두 번째로 적은 용례가 발견된다. 1,166개의 용례 중에서 14개 용례만이 『御製詩經』에서만 어구를 반복하는 번역을 보여준다. 구성 방식별로 보면, ABAC 구성이 12개 용례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외에 ABCB 구성에서 1개 용례, ABCBD 구성에서 1개 용례가 발견된다. 이 유형에서는 반복되는 성분이 간격을 둔 구성만 발견된다.

(14) 『御製詩經』에서만 반복을 보이는 번역
  a. ABAC: 俾臧俾嘉(어질고 아름답게 (되어야 한다))
    sain ***oso***, saikan ***oso***. (御詩 18:16a)
    saikan bime sain obuci acambikai, (翻詩 7:9a-9b)
  b. ABAC: 匪教匪誨(가르쳐 주지도 않고, 깨우쳐 주지도 않는다)
    taciburengge ***waka*** tacihiyarangge ***waka***. (御詩 18:76a)
    tafulambi jombumbi seci ojorakūngge, (翻詩 7:45a-45b)
  c. ABAC: 時萬時億(때맞춰 만을 때맞춰 억을)
    erin dari tumen, ***erin dari*** bujun ombi. (御詩 13:17a)
    ereci tumen bunai de isibumbi. (翻詩 5:88a)

(14a)에서는 『御製詩經』에서 o-(되다)의 명령형인 oso가 쓰였으나 『御製翻譯詩經』에서는 반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4b)에서는 『御製詩經』에서 waka(아니다)가 중복되어 있고, (14c)에서는 『御製詩經』에서 erin dari(시간마다)가 반복되어 있다. 반면에 『御製翻譯詩經』에서는 반복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5.2. 『御製翻譯詩經』에서만 반복

『御製翻譯詩經』에서만 반복되는 유형은 90개가 발견된다. 구성 방식별로 보면, ABCC 29개, AABC 24개, ABAC 18개, AAB 5개, AABB 1개, ABAB 5개, ABCB 4개, ABCDD 2개, AABCD 1개, ABCDEFF 1개가 발견된다. 단어 또는 구가 차이나는 유형에서 『御製詩經』에서만 반복한 번역이 1개인데 비하여 『御製

翻譯詩經』에서만 반복한 번역은 333개인 것과 관련시켜 보았을 때 『御製翻譯詩經』은 『御製詩經』에 비해서 반복 구성을 더 충실히 번역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5) 『御製翻譯詩經』에서만 반복을 보이는 번역

a. AAB: 訩訩兮(많고 많다)
far sembi. (御詩 1:11b)
far far sembi, (翻詩 1:6a)

b. AAB: 振振兮(떨치고 떨친다)
giyan i yendembi. (御詩 1:11b)
bar bar seme yendembi. (翻詩 1:6a)

c. ABAB: 采苓采苓(감초를 캔다, 감초를 캔다)
mida guruci, (御詩 6:19a)
jancuhūri orho gurumbi jancuhūri orho gurumbi, (翻詩 3:61a)

『御製翻譯詩經』의 번역자들은 『御製詩經』에서 1번만 쓰는 음성상징 성분도 반복하여 쓰는 쪽으로 번역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예가 (15a)이다. 또한 (15b)에서처럼 『御製詩經』에서 음성상징 성분으로 보지 않은 것도 『御製翻譯詩經』에서는 음성상징 성분으로 보고 반복하여 번역하였다. 주목할 점은 (15a)와 (15b)는 모두 AAB 구성이라는 것이다. 『御製詩經』의 번역자들은 이 구성을 반복 구성으로 번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御製翻譯詩經』의 번역자들은 9개 용례 중 8개를 반복 구성으로 번역하였다. 결국 『御製翻譯詩經』의 번역자들은 AAB를 반복 구성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15c)에서처럼 ABAB 구성을 『御製詩經』 번역자들이 반복으로 번역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御製翻譯詩經』 번역자들은 이러한 번역들도 모두 반복하여 번역하였다.

5.3. 두 판본에서 다른 양상으로 반복

두 판본에서 다른 양상으로 반복하는 용례는 59개가 발견된다. 구성방식별로 보면, AABB 3개, AABC 11개, AABCD 2개, ABAB 7개, ABAC 14개, ABCB 10개, ABCC 10개, ABCDD 2개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번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16) 다른 양상으로 반복되는 번역

a. AABC: 噎噎其陰(음산하게 흐리다)
tere i tulgun ***geri fari***, (御詩 2:12b)
biyargiyan biyargiyan i tulhušembi, (翻詩 2:7b)

b. AABC: 惴惴其慄(그 두려움에 벌벌 떤다)
enggeleme geleme šurgehe. (御詩 6:29a)
dar dar seme gelembi, (翻詩 3:71a-71b)

c. ABCC: 維莠驕驕(강아지풀만 무성하다)
hara ***canggi etenggi*** ombi. (御詩 5:10b)
fik fik seme hara muturahū, (翻詩 3:30b-31a)

d. ABAB: 黃鳥黃鳥(노란 새, 노란 새)
gūlin cecike, gūlin cecike, (御詩 11:6a)
suwayan gasha suwayan gasha, (翻詩 5:20b)

e. ABCB: 叔兮伯兮(아저씨시여, 아저씨시여)
šu ***hi,*** be ***hi*** (御詩 2:31b)
mini deote ***mini*** ahūta, (翻詩 2:17b)

f. ABCB: 叔兮伯兮(아저씨시여, 아저씨시여)
šu ***hi***, be ***hi*** (御詩 4:38a)
deote ***kai*** ahūta ***kai***, (翻詩 3:13a)

(16a)의 경우,『御製詩經』에서는 음성상징 성분의 반복으로 번역하였지만,『御製翻譯詩經』에서는 형용사를 반복하여 번역하였다. 반면에, (16b)에서는『御製詩經』이 유사한 음성을 보이는 동사인 enggele-(돌출하다)와 gele-(두렵다)를 이어서 쓴 반면에,『御製翻譯詩經』에서는 음성상징 성분을 반복하여 번역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御製詩經』에서 의미는 다르지만 음성이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여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16c)에서도 canggi(~만)과 etenggi(강한)와 같이 유사한 음성의 단어를 이어서 썼다. 그러나『御製翻譯詩經』에서는 음성상징 성분을 반복하여 번역하였다. (16d)의 경우, 한자어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기인한 반복의 차이를 볼 수 있다. 黃鳥를『御製詩經』에서는 gūlin cecike(꾀꼬리)로 번역한 반면에,『御製翻譯詩經』에서는 suwayan gasha(노란 새)로 번역하였다. 원래『詩經』에서 黃鳥가 '꾀꼬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역 모두 의미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6e, f)는『御製詩經』과『御製翻譯詩經』의 번역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준다.『御製詩經』에서는 번역 전반에 걸쳐서 한자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번역에서는 허사(虛辭) 兮를 한자음을 그대로 써서 hi로 번역하였다. 물론 사전에서 hi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御製翻譯詩經』에서는 兮를 확신을 나타내는 첨사인 kai로 번역하거나, 兮를 번역하지 않더라도 mini(나의)를 써서 반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16e, f)를 통하여 『御製翻譯詩經』의 번역자들이 『御製詩經』의 번역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주어 어휘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반복 구성을 반영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4. 두 판본에서 모두 반복하지 않는 구문

두 판본에서 모두 반복하여 번역하지 않은 유형은 전체 유형에서 가장 적은 11개 용례가 발견된다. 특히, 이 유형은 11개 용례 중 10개가 ABAC 구성에 속한다. 나머지 1개 용례는 ABCB 구성에 속한다. 두 판본에서 모두 반복으로 보지 않은 용례들은 반복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문이다.

(17) 두 판본이 모두 반복으로 번역하지 않은 용례
  a. ABAC: 爲絺爲綌(가는 베 굵은 베 만든다)
     narhūn muwa jodofi (御詩 1:6a)
     jodon hiyaban jodofi, (翻詩 1:3a)
  b. ABAC: 旣優旣渥(넉넉하게 젖었다)
     simen dara oci (御詩 13:22b)
     ambula simehebi, (翻詩 5:90b)
  c. ABCB: 伯兮揭兮(그 분은 용감하다)
     be hi baturu, (御詩 3:43a)
     agu yala baturu kai, (翻詩 2:55a)

(17a)에서는 爲가 반복되었지만 '베를 짜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에 가깝다. 그래서 두 번역 모두 반복하지 않고 번역하였다. 두 문헌의 차이는 『御製詩經』의 narhūn muwa(얇다 굵다)와 『御製翻譯詩經』의 jodon hiyaban(갈포(葛布) 하포(夏布))에서 드러난다. 『御製詩經』은 '베'라는 것을 번역하지 않았지만, 『御製翻譯詩經』은 '베'라는 것을 반영하여 번역하였다. (17b)의 경우, 旣가 반복되어 있지만 두 문헌 모두 번역하지 않았다. 『御製詩經』은 '축축하게 비가 내리니' 정도로 번역하였고, 『御製翻譯詩經』은 '많이 젖었다'로 번역하였다. 가랑비에 땅이 젖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문헌 모두 내용을 반영한 번역이지만 『御製翻譯詩經』이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17c)에서도 그러한 번역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용례에서는 兮가 반복되어 있는데, 『御製詩經』은 hi로

한 번만 번역하였다. 반면에『御製翻譯詩經』은 앞에 있는 ᡤᠠᠯᠠ는 yala(진실로)로 번역하였고, 뒤에 있는 ᡤᠠᠯᠠ는 확신을 나타내는 어말 첨사인 kai를 써서 '당신이 진실로 용감하다'라고 번역하였다. 즉,『御製翻譯詩經』은 반복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한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맺음말

본 연구는『御製詩經』과『御製翻譯詩經』의 번역 방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한자 반복 구성을 만주어로 번역한 양상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詩經』에서 한자 반복 구성은 1,166개가 나타났다. 구성 방식으로 분류하여 보면 19개로 분류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자 반복 구성을『御製詩經』과『御製翻譯詩經』이 번역한 양상을 중심으로 하여 유형화하였다. 만주어 번역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완전일치, 대체로 일치하나 미세하게 차이가 나면 부분일치,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을 때는 불일치로 크게 유형화하였다. 다시 내용별로 부분일치를 음소, 음절, 단어/구 차이로 구분하였고, 불일치는『御製詩經』만주어에서만 반복이 나타나는 유형,『御製翻譯詩經』만주어에서만 반복이 나타나는 유형,『御製詩經』과『御製翻譯詩經』만주어에서 모두 반복이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유형, 끝으로『御製詩經』과『御製翻譯詩經』만주어에서 반복도 나타나지 않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분류하여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번역 방침의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御製詩經』은 전체적으로『御製翻譯詩經』에 비해서 한자 반복 구성을 만주어 번역에 적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御製翻譯詩經』에서만 반복 구성으로 번역한 것이 423개 용례이지만,『御製詩經』에서만 반복 구성으로 번역한 것은 15개 용례에 불과했다. 다음으로『御製詩經』에서는 음성상징 성분을 변형하여 반복하였지만,『御製翻譯詩經』에서는 동일한 음성상징 성분을 반복하였다. 셋째,『御製翻譯詩經』에서는 시가(詩歌) 형식의 글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잘 살리기 위해서 ni나 kai와 같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첨사를 많이 사용하였다. 넷째,『御製翻譯詩經』에서는『御製詩經』보다 원문의 의도를 잘 나타내는 쪽으로 번역하였으며『御製詩經』에서 번역이 잘못된 경우에는 바로잡기도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길어지더라도 필요한 단어를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다섯째,『御製詩經』은 문법 형태소를 음차할 정도로 한자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경우가 빈번하나『御製翻譯詩經』은 만주어 고유어로 번역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많은 예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문헌이 간행된 시기의 문법의 차이를

반영하여 번역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가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에 나타나는 모든 문장을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가(詩歌) 형식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반복 구성에 대한 번역 양상을 두 문헌 전체를 통하여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御製詩經』과 『御製翻譯詩經』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차이에 대한 현상을 기술하는 데 집중하였다. 두 문헌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철저한 기술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문헌의 번역 차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추후의 연구에서 시도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고동호(2002), “만주어 음성상징 성분의 구성 특징”, 「알타이학보」 12, 1-34.

김주원・고동호・정제문(2009), “만문 시경의 번역 양상 연구”, 「알타이학보」 19, 1-30.

도정업(2018), “만주어 대등 접속문 구성에서 분사 어미의 분포와 특성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언어학」 82, 165-190.

성백인(1990), “초기 만주어 사전들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알타이학보」 2, 27-69.

이훈(2018), 「만주족 이야기」, 서울: 너머북스.

최계영(2017), “『御製增訂淸文鑑』 신규 표제어 연구”, 「알타이학보」 27, 25-50.

葉高樹(1992), “『詩經』滿文譯本比較研究－以<周南>, <召南>爲例”, 「歷史學報」 20, 219-234.

趙志忠(2000), “從『淸文啓蒙』看淸代前期滿族人的雙語使用”, 「滿語研究」 1, 26-31.

宮崎市定(1991), “淸朝における國語問題の一面”, 宮崎市定全集 14. 282-337. 東京: 岩波書店.

Chase, Hanson (1979), The Status of the Manchu Language in the Early Ch’ing, University of Washington Ph.D Dissertation.

Do, Jeongup (2019), Influence of analogy on innovation of an interrogative particle in Manchu, *Eoneohag* 85, 3-27.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Manchu Translation of Chinese Repetition in *The Book of Odes*

Jeongup Do · Sunghoon Jung

This study typifies and examines *Han i araha ši ging ni bithe*(御製詩經) and *Irgebun i nomun*(御製翻譯詩經). The purpose is to make clear the differences between translation policies *Han i araha ši ging ni bithe* and *Irgebun i nomun* through this. In order to compare the Manchu translations on the repeti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Han i araha ši ging ni bithe* and *Irgebun i nomun*, we made a database of *Han i araha ši ging ni bithe* and *Irgebun i nomun*, and searched for Manchu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the repeated expressions of Chinese characters in them. Most repetitions were 4-letter expressions, and the forms of ABCC, ABAC, AABC, ABCB, ABAB, AABB were more than 95% of the total. On the other hand, if the Manchu translations of *Han i araha ši ging ni bithe* and *Irgebun i nomun* for the repetitive composition match perfectly, we classified it as ‘complete match’, and if partially match, we classified it as ‘partial match’. And then, we classified the rest of them as ‘mismatch’, ‘mismatch’ form has 4-subtypes. As a result, we verified differences in translation policies. First, compared to *Irgebun i nomun*, *Han i araha ši ging ni bithe*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rate as a whole when applying Chinese character repetition to Manchu translation. Second, in *Han i araha ši ging ni bithe*, the phonetic symbol components were modified and repeated, but in *Irgebun i nomun*, the same phonetic symbol components were repeated. Third, in *Irgebun i nomun*, particles that can reveal emotions such as ni or kai were used a lot in order to make good use of the emotions in poems. Fourth, *Irgebun i nomun* was translated more faithfully in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than *Han i araha ši ging ni bithe*, and if the translation of *Han i araha ši ging ni bithe*

was incorrect, it was corrected and translated. Fifth, *Irgebun i nomun* is frequently translated using Chinese characters to the extent that grammatical morphemes are transliterated.

Key words: Written Manchu, *The book of odes*, repetition construction, translation policy, comparative study, quantitative approach

논문 접수: 2023.03.01.
논문 수정: 2023.04.17.
게재 결정: 2023.08.07.

View publication stats